



신혜원

PROFILE

2001년 02월 04일 생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79

CONTACT

010-8788-6201
hdsjs0102@gmail.com

SKILLS

개발 기술 I

HTML, CSS, jQuery, JavaScript

툴 활용 능력 I

Photoshop, Illustration, Figma,
Microsoft PowerPoint,
오피스 한글

학력사항

2020.02

풍산고등학교 졸업

2020.03

계원예술대학교 |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입학

2022.03

계원예술대학교 |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세부 전공 선택

2023.02

계원예술대학교 |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졸업 예정

경력사항

2021.02 - 2022.12

효성약국 근무

주요 수행 업무

- 처방전 입력 및 관리
- 약품 재고 확인 및 관리
- 장부 기입 및 관리

주요활동

기간

2020.11.20 - 2020.11.22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활동내용

2020 졸업전시준비위원회 방역 팀

2020년 졸업 전시에서 방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사전예약 한 방문객들을 확인하고, 체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정 시간마다 전시실을 환기 시키고, 소독하며 방역에 힘썼습니다.

기간

2022.11.11 - 2022.11.24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활동내용

2022 졸업 전시 브랜딩팀 코드 도우미

2022년 졸업 전시 BOUNCE!130의 웹사이트에서

Student Meta 페이지 부분의 제작을 도왔습니다.

기간

2022.11.21 - 2020.11.28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활동내용

2022 졸업전시준비위원회 하드웨어 팀

2022년 졸업 전시에서 하드웨어 설치를 담당하였습니다.

전시에 사용할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 대여한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운반하는

철수 작업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상내역

2022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 공모전 특선 | 개발 파트로 참여

바른 자세의 정석 신혜원입니다

|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자세

“도전은 계속된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체육 그리고 미술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실력이 부족했던 미술을 선택하면서 저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시 미술의 과정을 거쳐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세 분야를 동시에 배우면서 저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2학년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전 저는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중 나에게 더 적합한 공부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서 개발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프로그래밍을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1년 동안 공부하고 개발한 결과물과 함께 또다시 도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도전이 저의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저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 나가 헤쳐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방법”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토의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였습니다. 특히 2학년 프로젝트 수업과 졸업작품 수업에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한 팀을 이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이상을 찾아가기 위해 나의 의견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하는 자세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웹 퍼블리셔가 되겠습니다.

|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

“예의의 시작은 책임감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휴학을 하는 동안 약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약국의 주된 업무는 처방전을 입력하고 관리하며 전산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업무 능력이 오르면서 약국장님과의 신뢰가 두터워져 약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생활로 다져진 책임감은 팀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팀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끝을 맺을 수 없다는 사명감에 힘입어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을 책임지고 팀과 기획한 방향의 웹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상황을 겪어 오면서 사회에 나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자세는 책임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개발 업무를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

“나는 생각한다. 고로 개발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개발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여 생각하는 인간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게 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더 깔끔히 코드를 작성할 수는 없을까?’,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이용하기 편한 웹일까?’ 등 많은 생각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코드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구현하지 못한 기능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응용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신기한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용자들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개발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능력까지 겸비한 웹 퍼블리셔가 되겠습니다.